

# “리더가 돼라! 넌 특별하니까”



FC서울 김기동 감독은 올시즌 합류한 슈퍼스타 제시 링가드(작은 사진)가 팀의 리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사진은 본지와 인터뷰용 포즈를 취한 김기동 감독.

최대성기자·한국일보 DB

# 한국 스포츠 경제

Smart Economy



11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링가드가 리더가 돼야 한다.” 프로축구 K리그1(1부) FC서울은 2024시즌을 앞두고 변화의 칼을 빼 들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성적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김기동(52) 감독을 선임했다. 김 감독은 지난 시즌 포항을 대한축구협회 코리아컵(구 FA컵) 우승과 K리그1 2위에 올려놓으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서울은 김 감독이 포항에서 보여준 ‘기동 매직’을 기대 중이다.

하지만 김 감독의 축구가 빛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 감독은 지난 27일 한국스포츠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선수들의 습관, 버릇을 고치는 것이 쉽다. 사람이 놀랐을 때 나오는 행동과 똑같다”며 “하지만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보다 세 번째 경기가 중요하다. 마지막엔 팬분들과 좋은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링가드 질책 이유? ‘특별한 선수’니까

김기동 감독은 지난 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 종료 후 링가드의 태도를 지적했다. 당시 그는 “교체로 투입돼 설명설명 뛰고 몸싸움도

‘EPL 스타’ 말 한마디 파급력 달라 생각보다 조용... 개성 더 강했으면 귀네슈 감독시절 공격축구 구현 목표 과정 힘들지만 마지막 웃게 해드릴 것

안 했다”며 “90분을 전부 뒀 선수보다 못 뛰다면 난 축구 선수로 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감독의 질책 후 링가드는 5일 동안 영국 휴가를 다녀왔다. 김 감독은 “링가드가 다녀와서 인사 대신 나를 안아줬다”며 웃었다. 이어 “당시 인터뷰에 관해 링가드와 대화를 나눴다. 링가드는 우리 팀의 특별한 선수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인터뷰를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항 시절에도 강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이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PL 스타’ 남다른 파급력... 팀 끌어 나가야 김 감독은 링가드가 ‘리더’ 역할을 맡길 바란

다. “링가드가 아직까진 조용하다”고 한 김 감독은 “훈련할 때도 본인 것만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링가드가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장(기)성용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EPL 스타’가 하는 말의 파급력은 다르다. 팀을 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감독은 링가드가 경험한 유럽 팀들의 훈련 분위기를 서울 선수들에게 전해줄길 원한다. “사실 서울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주위에서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처음엔 나도 선입견을 품고 선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순진하다. 개성이 더욱 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훈련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조용하다”며 “자꾸 소리 지르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짚어줘야 경각심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링가드에게도 팀의 정적인 부분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러자 ‘유럽에선 선수들끼리 훈련 중 싸우기도 하고, 욕설도 나온다. 팀이 조용한 것 같긴 하다’더라”며 “본인도 공감했고, 들켰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서울의 변곡점은 ‘4월’ 서울은 최근 A매치 휴식기를 맞아 강도 높은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김 감독은 역동적이며 직선적인 축구를 하길 원한다. 그는 “빠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고, 상대의 허점을 그들의 진영에서 찾아 들어가길 원한다”며 서울에 임하고 있는 축구를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 내려섰을 때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순간의 패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의 전성기 시절을 돌아본다면, 세를 귀네슈 감독 시절 보여준 좋은 외국인 선수들을 바탕으로 공격 중심의 축구였다. 그런 공격 축구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도 귀띔했다.

김 감독이 꼽은 변곡점은 4월 이후다. 그는 “사실 선임 이후 선수들을 살펴보니 경기에서 서지 못한 선수,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선수 등 팀이 하나로 뭉치기에 어려웠다”며 “전체적으로 팀이 하나로 뭉쳐 훈련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4월이 지나면 좋은 모습이 분명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감독은 “이제 시작이다.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마지막은 웃게 해드릴 자신이 있다. 계속 응원을 보내주시면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라·류정호 기자

## K리그, 2027년부터 완전 승강제 ‘2부↔3부’ ‘4부↔5부’ 벽 뚫기로

대한민국 성인 축구 리그도 유럽처럼 프로부터 아마추어팀까지의 승강제가 이루어진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2부리그(K리그2)와 3부리그(K3리그) 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최근 합의했다. 2026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년 승격과 강등팀이 정해진다”고 발표했다. 4부(K4리그)와 5부(K5리그) 간 승강도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이로써 프로축구인 1부리그부터 동호인 축구인 7부리그까지 한국 성인 축구 전체의 승강 시스템이 3년 뒤에 사실상 완성될 예정이다. 프로축구가 첫 출발한 1983년 이후 44년 만에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축구에서는 프로리그인 K리그1과 K리그2, 세미프로인 K3리그와 K4리그, 아마추어인 K5, K6, K7리그 간에 승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와 세미프로, 세미프로와 아마추어간의 승강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 리그 전체를 관통하는 온전한 승강제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축구의 오랜 과제였다.

축구협회는 “1~7부에 걸친 승강제 전면 시행을 위해 협회와 프로연맹은 최근 몇 년 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핵심 과제였던 2부(K리그2)와 3부(K3리그) 간의 승강제 시행을 놓고 양측이 조금씩 의견을 좁혀온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 윤이나 징계 해제... 다음주 방신실과 꿈의 장타 대결

### KLPGA 국내 개막전 두산 위브 챔피언십

1년 9개월 만에 정규 투어 대회에 나서는 윤이나(21)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매니지먼트사 크라운에 따르면 윤이나는 지난 20일부로 징계가 해제됐다. 크라운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윤이나는 4월 4일부터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개최되는 KLPGA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을 첫 출전 대회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이나는 2022년 한국여자오픈 당시 러프에서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쳐낸 공이 남의 공인 사실을 알고도 플레이를 계속했다가 약 한 달이 지난 다음 털어내 대한골프협회(KGA)와 KLPGA 투어로부터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 감을 거쳐 이달 해제가 됐고, 곧바로 투어 대회 출전을 알렸다.

선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별개로 투어 흥행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이

나와 방신실의 장타 대결은 이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꿈의 대결이다.

윤이나가 2022시즌 징계를 받기 전까지 15개 대회(45라운드)에 출전해 기록한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63.4517야드에 이른다. 윤이나의 버치힐 컨트리클럽(파72) 18번 홀(파5) 투은 성공은 KLPGA 투어 장타를 논할 때 회자하는 명장면이다. 버치힐 18번 홀은 526야드이지만, 오르막 경사로 인해 실제 거리는 600야드가 넘는 수준이다. 윤이나는 이 코스에서 투은하고 공을 홀컵 7m 안

팍에 붙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윤이나가 징계로 자숙하는 사이 해성처럼 등장한 ‘신예’ 방신실은 2023시즌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262.4734야드(1위)를 기록했다. 그 해 2위(257.1697야드) 황유민과 5야드 이상 격차를 냈다. 윤이나와 방신실은 모두 다음 순위와 격차를 5야드에서 10야드 안팎 낸 압도적인 장타자다.

윤이나와 방신실의 장타 대결을 볼 수 있는 첫 무대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는 구름 갤러리가 물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 기간 훈련과 함께 미국 여자프로골프 미니투어와 호주 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 등에 출전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해 온 윤이나는 “좋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종민 기자

1.5°C W W  
Earth Together, Act Net Zero

‘한국 대표 스마트 경제지’  
**한스경제**

Happy Together News  
행복을 주는 뉴스  
감동을 주는 뉴스  
지구와 공존하는 뉴스

한국스포츠경제 ESG 행복경제연구소 (주)한국뉴미디어

HANS ECONOMIC DAILY

(주)한국뉴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7 서머셋팰리스서우 4층  
대표전화: 02-725-6007 | 팩스: 02-725-3939